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샬롬 !

본국사역(안식년)을 위해 귀국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네요. 세월이 시속 70마일로 빠르게 달리는것이 못내 아쉽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 있는 12월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 좋습니다.

본국 사역 중에 저희 부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일본에 다녀 왔습 니다.
모리오카와 후쿠시마에 머물면서 요리교실을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여도 좀처럼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다가가기가 어려운 일본인들이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해서 요리 교실이 아주 효과 만점인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여세를 몰아 장소를 옮겨 가며 세 차례나 요리교실을 열었는데 전혀 복음을 들을수 없는 참가자들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요리도 열심히 배우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무장해제가 되어 격없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30대 젊은 엄마들 뿐 아니라 60대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모리오카에서 젊은 엄마들의 요리 교실



라디오 운동 모임 대상으로 요리교실



후쿠시마 이와기 교회에서 복음과 요리교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요즘은 일본을 넘어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요리교실을 통한 복음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 와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볼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한국식 카페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음을 몸소 경험했기에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서 한국식 카페 사역에 대해 고민하며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편으로는 올해 초부터 책임을 맡고 있는 제1그룹(동남아시아 지역) 지역대표로서 여섯 유닛 10명의 선교사님들을 멤버 케어 하고 행정적, 사역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덕분에 새 힘을 얻으며 또한 새 능력을 부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며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기도제목

1. 2025년 선교 계획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2. 일본교회가 원하는 korean cafe를 잘 준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3. 요리교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있는 일본 영혼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도록.
4. 일본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5. 저희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분별하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도 연약한 저희들의 사역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협력해 주신 동역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함제임스/ 함린다 선교사 드림